

서구인의 눈빛, 조선의 얼굴

《서양인이 본 조선》출판기념 도서전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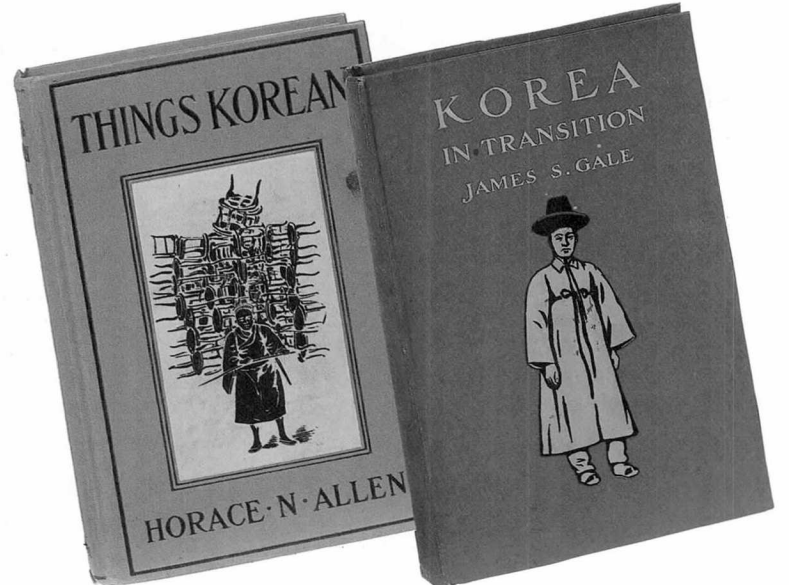
한 세기 전 한반도는 이국의 문화와 눈빛으로 둘러싸였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렸던 조선은 서구인의 눈에 어찌면 그리운 향수같은 것이었던 듯하다. 그들은 많은 기록을 남겼다. 고서점 호산방의 박대현 사장이 그 많은 기록을 샅샅이 뒤져 모아 꼼꼼한 서지로 정리했다. 《서양인이 본 조선-조선관계 서양서지》(호산방)는 그의 15년 열정의 결과다. 서지정보가 담긴 책들과 거기에 실린 사진은 오는 10월 8일 오후 5시부터 13일까지 태평로 일민문화관(동아일보 광화문 사옥)에서 일반인에게도 선보인다. (문의 722-8029)

우리는 1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이국인이 어떻게 조선과 조선사람과 조선풍물을 그렸는지 이제가 샅샅이 알게 된다. 오해와 왜곡, 과장과 연민이 뒤섞여 있는 그들의 기록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고, 찾고, 보존했느냐의 질책을 받는다. 조선을 바라본 그들의 눈빛과 그 기록물의 창연함에 다시금 오늘 한국의 모습을 되 돌아본다. <편집자>



《Korea》(Hamilton, 라이프치히, 1904년)

《Korean Games》(Culin, 필라델피아, 1895년)



《Things Korean》(Allen, 뉴욕, 1908년)

《Korea in Transition》(Gale, 뉴욕, 1909년)

민족사적 입장에서 정리한 서양인의 저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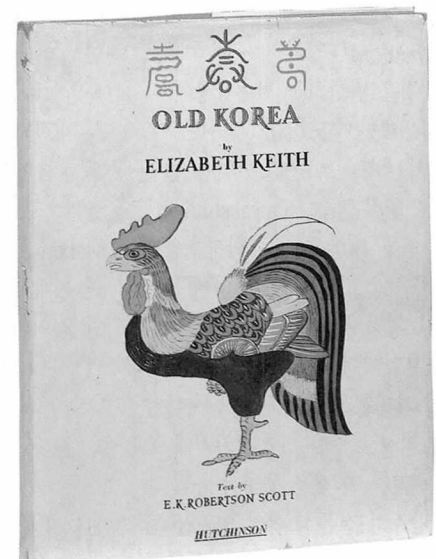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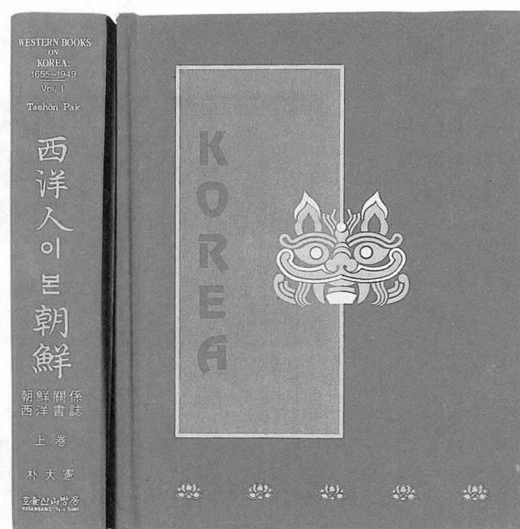
박대현 지음 《서양인이 본 조선-조선관계 서양서지》(상, 하)

이 책은 1655년부터 1949년까지 약 300년 동안 서양의 선교사·탐험가·군인·학자들이 조선을 관찰, 연구한 바를 서술한 188종 261편본을 서지학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서양인들이 남긴 조선관계 서적은 당시 조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 흥미로운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가치도 귀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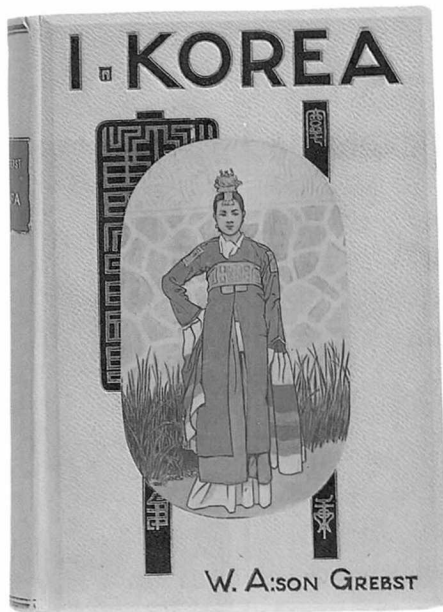
영·독·프랑스 등 서양어로 씌어진 조선관계 책의 판본 261권은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태동기, 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전 왜국시기인 초기 접촉기, 조선을 둘러싸고 서양열강의 세력다툼이 있던 개화기, 1905년~1949년까지의 최근기로 나눠 연대별로 정리했다. 각 책들의 서지사항은 물론 목차, 도판 목록과 함께 출판배경과 내용, 성격에 대한 상세한 해제도 실었다. 또 문헌의 연표와 색인도 실어 학계의 기초 연구자료로도 유용하다.

특히 각 책들의 표지와 내용사진을 질감이 살아 있는 섬세한 사진으로 담아내 보는 이를 감탄케 한다. 표지와 제본에까지 일일이 쏟은 노력도 돋보이는데, 아무런 재정지원 없이 15년간 개인의 힘으로 이뤄낸 열정도 놀랍다.

호산방/B5/1052면/한질 1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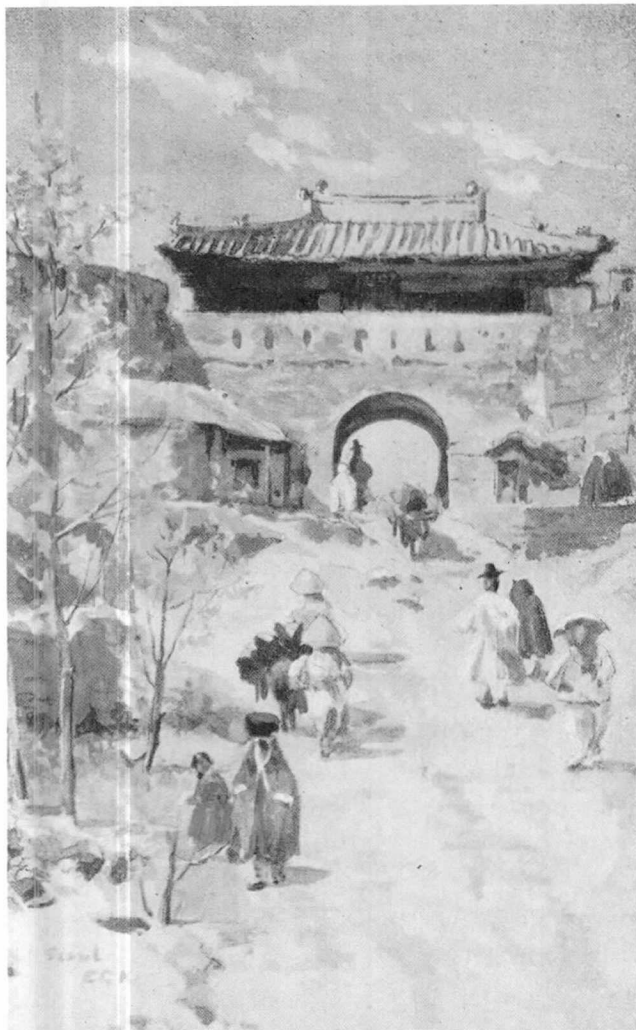
《Old Korea》(Keith자매, 런던, 1946년)



《I Korea》(Grest, 스웨덴, 1912년)



훈장글가르치고, Cavendish의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런던, 1894년) 중에서.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 그림.



숙정문(肅靖門).
Kemp의 《The Face of Machuria, Korea and Russian Turkestan》(뉴욕, 1911년) 중에서.



백두산 천지. James의 《The Long White Mountain》(런던, 1888년) 중에서. Younghusband 그림.



안중근 집안의 결혼식. 《Im Lande der Morgenstille》(뮌헨, 1915년) 중에서.